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따른 문화탐방로 유형변화

Changing cultural field route for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김일림(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ilrim9@smu.ac.kr)

최근 다양한 부문에서 문화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각 구별 문화원이 설립되면서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이 실시되어왔다. 따라서 구별 문화원 현황과 구별 구청을 중심으로 문화탐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그리고 답사를 통한 연구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문헌은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향토문화자원의 책을 기본으로 삼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각 문화원 홈페이지 등을 기본 유형으로 참고하였고 이에 따른 답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지역의 문화원은 25개구 중에 22개 문화원이 있다. 1995년 이전부터 설립된 문화원은 6개로 관악구, 도봉구, 중구, 강서구, 종로구, 송파구문화원 순이다. 모두 9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다. 강남문화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화원은 90년대 후반에 창립하였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구내 문화원이 없는 구는 서대문, 구로구, 서초구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서울의 25개 구청별 홈페이지는 모두 있다, 그러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는 17개문화원만이 개설 중에 있고 이중에도 단지 9개구만이 각 구청과 연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구와 문화원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고, 지역마다 구청과 문화원과의 역할들도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단위에서는 각종 축제와 문화자원을 개발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러한 일환으로 구지나 문화유적, 향토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향토연구사전국협의회의 활동과 함께 거의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몇몇 단체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오다가 최근에는 각 지역단위별로 각종 향토문화단체들이 창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확연하게 들어나는 단체로는 서울문화사학회가 1986년에 창립되었고, 두레, 민화회, 국학연구소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현재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문화탐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로 문화콘텐츠 개발에 따른 문화탐방루트가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화유적 소개와 문화탐방 루트에 대한 홍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 구별 홈페이지는 모두 개설되어있으나 문화원과의 연계되어 있는 곳은 단지 9지역으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각 구내의 홈페이지 내에 문화유적에 대한 소개는 과거의 백과사전

식의 나열에 의한 것이고, 단지 문화유적 루트가 진행되어지는 곳은 8지역에 해당하나 이것도 각 자체 내부탐방에 대한 것은 단지 5지역뿐이다. 나머지 3지역은 외부의 지명도가 높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외부탐방이 봄가을에 있는 정도이다. 각 지역별로 구청의 자료가 풍부한 지역으로는 종로구청과 마포구청을 들 수 있다. 종로구는 서울시청의 영향으로 서울시의 문화탐방은 서울의 상징인 종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화원내에는 홈페이지가 없어 연계가 되지 않는 독자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각 지역별 개발 수단으로 문화전략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이고, 시도하고 있는 구도 많지 않다. 이러한 산업과 연계되어서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수준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향토문화대전을 형성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있다. 이 또한 시작단계에 있다.

현재 서울의 각 구별 문화콘텐츠현황에 대한 유형을 보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구분된다. 과거형은 문화유적지 조차 소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고, 현재형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미래형은 각 지역별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과거의 문화유적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개발로 주제별로 지역산업과 연계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래형의 유형으로는 종로구를 들 수 있다. 종로구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화 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문화탐방로란 단지 과거의 문화유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상징 될 수 있는 특색에 따라서 생태문화, 유적문화, 궁문화, 종교문화, 주거(한옥)문화, 음식문화, 예술문화, 산업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탐방로를 조성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정적인 문화탐방에서 벗어나 동적인 문화탐방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 탐방로에 대한 유형구분은 향후 늘어나는 여가시간의 활용에 발맞추어 각 구에서는 각지역적인 문화콘텐츠개발로 일반 시민형과 학생용으로, 학생용도 학년별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즉, 시간별, 공간별, 수준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다 유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문화산업으로 확장시켜야만 한다. 이는 각 지역의 문화산업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와 미래형은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탐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문화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각 구는 우후죽순처럼 각종 콘텐츠가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편적이고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연계성 있는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하향에서 상향으로 조정되는 체제가 도입되어야만 문화콘텐츠개발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발전으로 연계되어 진다.